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박대성^{1*}

¹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Dae-Sung Park^{1*}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G대학교 보건계열 3년제 학과 중에서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를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39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최종 분석은 366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05$ 이었다. 연구 결과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과 및 효과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390 students attending the three-year curriculum departments of G college in G metropolitan city including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physical therapy and health administration randomly a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June 4 to 6, 2012 with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366 respons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2.0 program and all tests were verif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epression from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had control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and regular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suicide and increase self-esteem are required, practic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conducted and studies showing its results and effects are also needed.

Key Words : Health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1. 서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사망자는 총 25만 5천명으로 이 가운데 15,566명(6.1%)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자살 사망자 대비 13.6명보다 17.7명(130.2%) 증가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국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을 비교하여도 우리나라는 타 국가의 평균 11.3명에 비해 28.1명으로 높았다[1]. 주목할 부분은 20대 자살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대 자살자 수는 2005년 1,361명에서 2009년 1,8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의 경우 2005년 35.3명에서 2009년 49.6명

*Corresponding Author : Dae-Sung Park (Gwangju Health College)

Tel: +82-62-958-7756 email: emtppds1@naver.com

Received November 23, 2012

Revised (1st December 24, 2012, 2nd January 10, 2013)

Accepted February 6, 2013

으로 40.5%가 증가였다. 이 중 대학생 자살자 수는 2005년 198명에서 2009년 249명으로 나타나 약 25.7%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자살생각은 죽음, 자살, 자해적 행동과 관련된 사고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심각한 정도의 자살생각은 한 사람의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뚜렷하고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3]. 이러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이며, 자살생각을 기점으로 자살기도, 자살위험,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 중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평생 자살생각은 39.2% 자살계획은 4.7%, 자살시도는 3.0%로 보고하였다[5]. 대학생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 우울 등이었다[5,6]. 청소년 및 대학생 자살자들의 사망 당시 70.4%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 중 44.4%가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상은 중고등학생보다 심각하게 나타났고, 생활스트레스 중 학업, 장애 및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9-11].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우울을 높게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한다[12].

Yu 등[13]은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 증상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 때 스트레스 증상 수준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G대학교 보건계열 3개 학과를 임의선정하고 390명을 편의표집 하였

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무기명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배부된 39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한 366부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대학 생활스트레스 척도

대학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Chon과 Kim[14]이 개발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도구를 Kang[15]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8가지 영역에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인관계 차원의 영역(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과 당면과제 차원의 영역(학업문제, 경제문제, 취업문제, 가치관 문제)로 2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Likert 척도는 '전혀 받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받는다.'(5점)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961$ 이었다.

2.2.2 우울 척도

우울 척도는 Kovacs[16]의 청소년 우울 척도(CDS: 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Jeon[17]이 변안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외로움 7문항, 무력감 11문항, 무가치감 7문항의 3가지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962$ 이었다.

2.2.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Cohen과 Hoberman[18]의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ISEL: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기초로, Kim[19]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물질적 지지 10문항, 평가적 지지 12문항, 소속감 지지 11문항, 자존감 지지 12문항의 4가지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699$ 이었다.

2.2.4 자살생각 척도

자살생각 척도는 Beck 등[20]의 자살생각 척도(SSI:

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Park과 Shin[21]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척도는 자살욕구 9문항, 자살태도 7문항, 자살준비 3문항의 3가지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척도는 0점에서부터 2점까지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853$ 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t-검정, 상관분석, 분산분석, 사후검증 Scheffe's test,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 검증은 회귀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사함으로써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고, 자기상관을 검정하는 통계량으로 Durbin-Watson을 사용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은 190명(51.9%), '남학생'은 176명(48.1%) 순이었으며, 학과는 '응급구조과' 127명(34.7%), '보건행정과' 120명(32.8%), '물리치료과' 119명(3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123명(33.6%) '1학년' 122명(33.3%), '2학년' 121명(33.1%) 순이었으며, 현 거주 형태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366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	Male student	176	48.1
	Female student	190	51.9
Departmen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27	34.7
	Physical therapy	119	32.5
	Health administration	120	32.8
Grade	Grade 1	122	33.3
	Grade 2	121	33.1
	Grade 3	123	33.6
Now residence form	Lives with parents	201	54.9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82	22.4
	Dormitory	83	22.7
Religion	Christianity	99	27.0
	Buddhism	22	6.0
	Catholic	25	6.8
	Atheist	220	60.1
Family configuration form	Parents+children	249	68.0
	Single-parent+children	81	22.1
	Grandparents(single-grandparent)+parents+children	28	7.7
	Grandparents(single-grandparent)+single-parent+children	8	2.2
District of origin	Metropolitan city	132	36.1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30	35.5
	Farming and fishing village	104	28.4
Health insurance a kind	Health insurance(employees/local)	348	95.1
	Medical aid	18	4.9
Monthly household average income (won)	1,000 ≤	17	4.6
	700 ≤	19	5.2
	500 ≤	68	18.6
	300 ≤	122	33.3
	<300	140	38.3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59	16.1
	Somewhat satisfied	100	27.3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32	36.1
	Somewhat dissatisfied	62	16.9
	Very dissatisfied	13	3.6

는 ‘부모님과 동거’ 201명(54.9%), ‘기숙사’ 83명(22.7), ‘자취’ 82명(22.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220명(60.1%), ‘기독교’ 99명(27.0%), ‘천주교’ 25명(6.8%), ‘불교’ 22명(6.0%) 순이었으며, 가족 구성 형태는 ‘부모+자녀’ 249명(22.1%), ‘편부(편모)+자녀’ 81명(22.1%), ‘조부모(편조부모)+부모+자녀’ 28명(7.7%), ‘조부모(편조부모)+편부(편모)+자녀’ 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자란) 지역은 ‘대도시’ 132명(36.1%), ‘중소도시’ 130명(35.5%), ‘농어촌’ 104명(28.4%) 순이었으며, 의료 보호종류는 ‘건강보험(직장/지역)’ 348명(95.1%), ‘의료급여’ 18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평균 수입은 ‘300만 원 미만’ 140명(38.3%), ‘300만 원 이상’ 122명(33.3%), ‘500만 원 이상’ 68명(18.6%), ‘700만 원 이상’ 19명(18.6%), ‘1,000만 원 이상’ 17명(4.6%) 순이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132명(36.1%), ‘다소 만족’ 100명(27.3%), ‘다소 불만족’ 62명(16.9%), ‘매우 만족’ 59명(16.1%), ‘매우 불만족’ 1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자살생각 평균은 0.20점, 대학 생활스트레스 평균은 2.33점, 우울 평균은 2.11점, 사회적 지지 평균은 3.08점으로 나타났다.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출신(자란) 지역, 월 가구 평균 수입,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1.26점)이 남학생(0.14점)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569, p<0.001$). 출신(자란) 지역은 중소도시(0.25점)가 대도시(0.18점) 및 농어촌(0.18점)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가 대도시 및 농어촌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189, p<0.05$). 월 가구 평균 수입에서는 700만 원 이상(0.35점)에서 자살생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0.26점), 300만 원 이상(0.21점), 300만 원 미만(0.17점), 1000만 원 이상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700만 원 이상과 500만 원 이상이 1000만 원 이상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735, p<0.001$).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0.13점)보다 매우 불만족(0.38점)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소 불만족이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만족 불만족 둘 다 아니다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858, p<0.0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SD
Suicidal ideation	Suicidal desire	0.00	1.33	0.24±0.380
	Suicidal attitude	0.00	1.14	0.27±0.299
	Suicide prepare	0.00	1.67	0.10±0.291
	Total	0.00	1.26	0.20±0.266
College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96	4.79	1.92±0.732
	An urgent problem	1.00	5.00	2.75±0.712
	Total	0.98	4.90	2.33±0.635
Depression	Loneliness	1.00	4.29	2.03±0.821
	helplessness	1.00	5.00	2.17±0.825
	worthlessness	1.00	4.57	2.12±0.815
	Total	1.00	4.29	2.11±0.782
Social support	Physical support	2.10	3.90	2.97±0.331
	Evaluation support	1.67	4.83	3.22±0.364
	Belonging support	1.64	4.36	2.94±0.390
	Self-esteem support	1.83	4.92	3.19±0.369
	Total	1.90	4.16	3.08±0.276

[Table 3] Comparison of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F	p-value	
Sex	Male student	0.14±0.214	-4.569	0.000	
	Female student	0.26±0.292			
Departmen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0.17±0.220	1.724	0.180	
	Physical therapy	0.24±0.298			
	Health administration	0.20±0.274			
Grade	Grade 1	0.19±0.219	1.523	0.220	
	Grade 2	0.24±0.323			
	Grade 3	0.19±0.244			
Now residence form	Lives with parents	0.20±0.276	1.011	0.365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0.19±0.193			
	Dormitory	0.24±0.245			
Religion	Christianity	0.19±0.230	0.308	0.819	
	Buddhism	0.24±0.348			
	Catholic	0.18±0.197			
	Atheist	0.21±0.279			
Family configuration form	Parents+children	0.22±0.297	1.779	0.151	
	Single-parent+children	0.18±0.197			
	Grandparents(single-grandparent)+parents+children	0.12±0.189			
	Grandparents(single-grandparent)+single-parent+children	0.13±0.011			
District of origin	Metropolitan city ^{a)}	0.18±0.260	3.189	0.042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	0.25±0.292			<i>a,c<b</i>
	Farming and fishing village ^{c)}	0.18±0.232			
Health insurance a kind	Health insurance(employees/local)	0.20±0.268	-0.703	0.483	
	Medical aid	0.25±0.212			
Monthly household average income(won)	1,000≤ ^{a)}	0.03±0.049	4.735	0.000	
	700≤ ^{b)}	0.35±0.479			<i>a<b,c</i>
	500≤ ^{c)}	0.26±0.291			
	300≤ ^{d)}	0.21±0.275			
	<300 ^{e)}	0.17±0.200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0.13±0.162	6.858	0.000	
	Somewhat satisfied ^{b)}	0.17±0.179			<i>a,b,c<d</i>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c)}	0.19±0.191			
	Somewhat dissatisfied ^{d)}	0.33±0.331			
	Very dissatisfied ^{e)}	0.38±0.389			

3.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살생각은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이($r=0.296, p<0.01$),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r=0.351, p<0.01$),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r=-0.060,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학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상관)이($r=0.626, p<0.01$),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0.193,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울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0.057, 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5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효과

주요 변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1에서는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상호작용 항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의 검정 결과, 모형이 유의미하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1.966으로 2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분산확대지수(VIF)는 1.0-2.0, 공차한계는 0.8-0.9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R^2 가 0.3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0.059$,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Suicidal ideation	College life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1			
College life stress	0.296**	1		
Depression	0.351**	0.626**	1	
Social support	-0.060*	-0.193**	-0.057*	1

* $p < 0.05$, ** $p < 0.01$

[Table 5]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Variable	Suicidal ideation						Collinearity statistics	
	Model 1			Model 2			Tolerance	VIF
	B	β	t	B	β	t		
College life stress	0.065	0.154	2.417*	0.017	0.042	0.091	0.930	1.003
Depression	0.088	0.259	4.140**	0.513	1.506	2.185**	0.923	1.469
Social support	-0.101	-0.105	-2.100*	-0.108	-0.112	-0.791*	0.942	1.714
College life stress×Social support				0.026	0.221	0.444	0.840	2.032
Depression×Social support				-0.137	-1.297	-1.826*	0.931	1.877
R ²		0.378			0.390			
△R ²					0.012			
F		20.059**			12.899**			
Durbin-Watson					1.966			

* $p < 0.05$, ** $P < 0.001$

$p < 0.001$). 또한 대학 생활스트레스는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065$, $p < 0.05$), 우울은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088$, $p < 0.001$),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1$, $p < 0.05$). 모델 2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 하기위해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대학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우울×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R²가 0.39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899$, $p < 0.001$). 자살생각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은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513$, $p < 0.001$),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8$, $p < 0.05$). 우울×사회적 지지만이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37$, $p < 0.05$)(Table 5).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조절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학생(1.26점)이 남학생(0.14점)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569$, $p < 0.001$). 출신(자란) 지역은 중소도시(0.25점)가 대도시(0.18점) 및 농·어촌(0.18점)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가 대도시 및 농·어촌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189$, $p < 0.05$). 월 가구 평균 수입에서는 700만 원 이상(0.35점)에서 자살생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0.26점), 300만 원 이상(0.21점), 300만 원 미만(0.17점), 1000만 원 이상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700만 원 이상과 500만 원 이상이 1000만 원 이상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735$, $p < 0.001$). 그리고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0.13점)보다 매우 불만족(0.38점)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소 불만족이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만족 불만족 둘 다 아니다보다 자살생각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858$, $p < 0.001$).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이 높다

는 선행연구[15,22,23]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환경과 영향으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Kim[24], Kang[25]에서도 생활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의 유형률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Lee[26]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았다. 이의 결과는 Kang[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은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이($r=0.296$, $p<0.01$),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r=0.351$, $p<0.01$),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r=-0.060$,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학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상관)이($r=0.626$, $p<0.01$),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0.193$,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울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0.057$, $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6-28]에서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고, 자살생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것이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Mean Centering을 한 후, 대학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우울×사회적 지지를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만들었다. 회귀모형의 검정 결과, 모형이 유의미하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1.966으로 2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분산확대지수(VIF)는 1.0-2.0으로, 공차한계는 0.8-0.9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변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R^2 가 0.3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0.059$, $p<0.001$). 또한 대학 생활스트레스는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065$, $p<0.05$), 우울은 정적(+

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088$, $p<0.001$),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1$, $p<0.05$). 모델 2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대학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우울×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R^2 가 0.390로 0.012만큼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899$, $p<0.001$). 자살생각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은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513$, $p<0.001$),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8$, $p<0.05$). 우울×사회적 지지만이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37$, $p<0.05$). Kang[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우울은 정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는 부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29]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Seo[28]의 연구에서 자살생각과 우울,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ang[15]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횡단적 연구를 통해 대학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만으로는 시점의 한계 때문에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선행하는 것인지, 자살생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이 향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G광역시 3년제 대학교에서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획일적 시점에 국한된 자료수집인 만큼,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안배와 확률적 표집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또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과 및 효과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2010 Cause of death on the statistical results, 2011.
- [2] Statistics Korea, <http://www.nso.go.kr>, 2009 Cause of death on the statistical results, 2010.
- [3] W. M. Reynold, "A school-based procedure for the identification of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al behaviors", *Family Community Health*, Vol.14, No.3, pp. 64-75, 1991.
- [4] P. M. Lewinsohn, P. Rohde, & J. R. Seeley,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2, pp. 297-236.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62.2.297>
- [5] J. J. Kim,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2, pp. 413-437, 2009.
- [6] V. R. Wilbern, & D. E. Smith,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Vol.40, 2005.
- [7] K. Houston, K. Hawton, & R. Shepperd, "Suicide in young people aged 15-24: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63, pp. 159-170,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165-0327\(00\)00175-0](http://dx.doi.org/10.1016/S0165-0327(00)00175-0)
- [8] E. H. Lee,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9, No.1, pp. 25-52, 2004.
- [9] M. S. Yoon, H. C. Cho, "A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 drinking on the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3, pp. 43-66, 2011.
- [10] J. P. S. Wong, S. Y. Steqrt, U. Rao, & T. H. Lam, "Exposure to suicidal behaviors among hong kong adolesc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1, No.3, pp. 591-599, 2005.
DOI: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04.12.012>
- [11] P. H. Kuo, C. O. Garder, K. S. Kendker, & C. A. Prescott, "The temporal relationship of the onsets of alcohol dependence and major depression: using a genetically informative study design", *Psychological Medicine*, Vol.36, pp. 1153-1162, 2006.
DOI: <http://dx.doi.org/10.1017/S0033291706007860>
- [12] Y. Su. Hong, S. Y. Jeon,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19, pp. 125-149, 2005.
- [13] Y. Hwa Yu, S. H. Lee, Y. R. Cho,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mpassio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s", *Cognitive Behavior Therapy*, Vol.10, No.2, pp. 43-59, 2010.
- [14] K. K Chon, K. K. Kim, "A control theory approach=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0, pp. 137-158, 1991.
- [15] S. H. K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2012.
- [16] M. Kovac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Vol.21, pp. 995-998. 1985.
- [17] G. Y. Je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4.
- [18] S. Cohen, H. M. Hoberman,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 99-125, 1993.
DOI: <http://dx.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19] M. S. Kim,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support on the anxiety by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4.
- [20] A. T. Beck, M. Kovacs, &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for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7, No.2, pp. 343-352.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47.2.343>

- [21] K. B. Park, M. S. Shin,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9, No.1, pp. 20-32, 1990.
- [22] M. W. Kim,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e ideation: the case of young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1.
- [23] Z. Rihmer, "Suicide risk in mood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Vol.20, No.1, pp. 17-22, 2007.
DOI: <http://dx.doi.org/10.1097/YCO.0b013e3280106868>
- [24] Y. B. Kim,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7.
- [25] K. B. Kang, "A study on the trend, the factor, and the prevention of suicide in life stages-centering around the young,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s suic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2010.
- [26] Y. J. Lee, J. J. Ko, "An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2010, No.1, pp. 154-155, 2010.
- [27] H. J. Park, "Relation of academical stress, locus of control, de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9.
- [28] M. S. Seo, "A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among yout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5.
- [29] J. Y. Bae,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for elderly suicidal thou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2005.

박 대 성(Dae-Sung Park)

[정회원]



-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춘해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의료체계, 응급처치학, 보건학